

## 신화를 통해 보는 아프리카인의 죽음과 조상신의 개념\*

홍명희

(경희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아프리카인들은 죽음에 대해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개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이다. 아프리카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는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신화는 죽음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상상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죽음의 기원 신화에 나타나는 죽음의 이유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죽음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관점이다. 신이 인간에게 선의로 죽음을 보내주거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중간 전달자의 실수로 신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바람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신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관점이다.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몫이 된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유형이다. 이는 인간은 이성으로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적 욕망과 감성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신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 친숙한 존재이다. 이러한 친숙한 신의 개념은 아프리카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연결된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신들과의 만남의 의미를 갖는다. 아프리카인들은 가족의 죽음을 또 다른 조상신의 탄생으로 본다. 이 조상신들은 일상 생활에서 절대 신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조상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만하고 의미있는 삶을 산 '좋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조상신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아프리카 신화, 죽음, 아프리카 신, 조상신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6919).

## 1. 들어가는 말

어느 문화나 시대를 막론하고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죽음은 적극적 기피의 대상이나 궁극의 징벌 도구가 되어왔고, 이는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현상이다. 필연적으로 필멸의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놓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대체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별에 따른 세계관의 구성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 대해 아프리카인들은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인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다른 문화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념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 긍정적인 인식들은 단순한 특징들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견이 많을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견 보기에 아프리카인은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 죽음을 직시하고 대처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한 듯 보이기도 한다. 전통 아프리카인들에게 개인의 죽음은 선형적 시간에 새겨진 수명을 마감하는 끝이 아니라, 체계화된 원형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의 흐름의 한 지점이며, 단지 삶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짧은 평균수명과 험난한 삶의 과정을 경험한 아프리카인들은 죽음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상력을 통해 사후세계에서의 생존, 환생, 조상 계승을 통한 공동체의 유지 등을 가정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축소해 버렸다고 볼 수도 있다. 전통 아프리카에서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공존한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고 적어도 그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 죽은 자들은 산 자들처럼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을 벗어난 상태라는 의미에서 살아있다. 아프

리카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는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산 자들의 세계에 개입한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세계, 심지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전부라 생각하는 서구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순환하는 자연의 세계관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아프리카인들의 죽음과 연관된 개념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의 하나는 바로 신화이다. 신화는 개인과 집단의 공통된 언어로 이루어진 일련의 구조화되고 집단화된 담론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집단의 공유된 가치관과 정신 유산이 담겨 있다. 즉, 신화는 단순한 비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리듬과 가치관, 공동체가 느껴 온 경험이 녹아있는, 그 공동체가 무의식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가치의 구조체인 것이다. 이러한 신화는 그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합리성의 기준을 뛰어넘으며 만들어지며, 종교적 교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든 신화는 그 사회의 행동 양식을 구조화하는 모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의 신화들은 죽음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상상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하면서도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신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세계관 또는 우주관 중에서 죽음과 신의 개념, 그리고 개인적 죽음과 관련된 조상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죽음의 기원 신화와 신의 개념

죽음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아프리카의 신화들은 죽음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죽음의 개념과 사회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사실 죽음에 대한 신화들은 아프리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신화는 아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들의 신화에 유사한 이야기 구조나 의미를 담고 있는 죽음과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루는 신화들이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죽음과 관련된 신화들은 신화의 기본적 특성인 보편성의 직접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보편적인 특성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인종에 상관없이 유사한 가치관과 세부적 내용을 담게 된다고 말한다.

Pourtant, ces mythes, en apparence arbitraires, se reproduisent avec les mêmes caractères, et souvent les mêmes détails, dans diverses régions du monde. D'où le problème : si le contenu du mythe est entièrement contingent, comment comprendre que, d'un bout à l'autre de la Terre, les mythes se ressemblent tellement? C'est seulement à la condition de prendre conscience de cette antinomie fondamentale, qui relève de la nature du mythe, qu'on peut espérer la résoudre.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자의적인 이 신화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특성으로, 또 종종 동일한 세부 사항으로 재현된다. 바로 이점에 문제가 있다. 신화의 내용이 전적으로 우연이라면, 지구의 한끝에서 반대편까지, 신화들이 그토록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신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근본적인 이율배반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이 모순의 해결을 바랄 수 있다. (Lévi-Strauss:229)

죽음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들은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거의 같은 이야기 구조와 내용으로 존재한다. 이 죽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프리카인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밝히는 단초가 된다. 우선 몇 개의 죽음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들을 보도록 하자.

[예문1]

태초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인간도 신처럼 죽지 않는 존재였다. (...) 인간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다. (...) 인간들은 도저히 이대

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천국의 신계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최고신) 유니는 인간의 고단한 삶을 그래도 좀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마침내 인간들은 고단한 삶에서 오는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 인간의 고통에 끝이 있도록 해야겠다.” 유니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는 인간의 고통을 끝내 주기 위해 죽음을 보냈다.(홍명희 외: 7~8)

[예문2]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었던 이 세상의 처음에는, 그들은 모두 창조의 나라에서 함께 살았다. 창조주는 (…)(누군가가 죽으면 매우 가슴 아파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수석 메신저인 개를 불렀다. 그리고는 개에게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했다. 앞으로는 누구든 죽게 되면 시신을 건물 안에 안치하고, 그 위에 나무를 태운 재를 뿌리라고 했다. 그러면 죽은 시신은 땅에 남게 되고, 24시간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개는 길을 떠났다. 그런데 한나절을 여행하자, 개는 지치기 시작했다. 마침 근처에 늙은 여자가 사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개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개는 고기가 약간 붙어있는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버렸다. (…)(이 일의 결과로 죽은 사람들은 언제나 매장되었고, 개는 메신저로서 기피되고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만일 개가 늙은 여자의 집에서 뼈다귀를 발견하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더라면, 죽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홍명희 2016:10~11)

[예문3]

‘은잠베’는 최고신이다. 죽음의 기원에 관해서 은잠베는 인간에게 영생과 개인적 부 사이에 선택권을 주었다. 어느 날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두 개의 꾸러미를 들고 나타났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두 꾸러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한 꾸러미는 매우 크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구슬과 화려한 옷가지들, 그리고 칼, 거울 등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다른 꾸러미는 작고 볼품없었는데, 남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마을의 여자들은 큰 꾸러미를 선택했다. 그들은 구슬과 옷가지들을 걸치고, 탐욕스럽게 큰 꾸러미를 가지고 갔다. 그 남자는 사실 은잠베였다. 은잠베는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사라졌고, 인간은 영원히 살 기회를 잃어버렸다.(홍명희 2017:103)

[예문4]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는 늙으면 다시 젊어졌고, 아무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욕구를 갖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떨감을 찾으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강 근처에서, 그녀는 낫선 사람이 카누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낫선 사람의 잇을 수 없는 시선이 그녀를 매료시켰다. “도망치지 말아요. 난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음의 사자예요. 나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할 거예요. 나는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소녀는 남자의 매력에 이끌려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다비아예요. 무엇을 선택하겠나요? 긴 삶, 아니면 짧은 삶?” 소녀가 말했다. “저는 짧은 삶을 원해요. 입문식(18세)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와 주세요.” 다비아는 수락하고는 사라졌다. 소녀는 마을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년 후, 입문식 마지막 축하 행사가 있던 날, 입문자들이 가장 좋은 파뉴와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을 때,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비아가 자신의 일을 한 것이다. 소녀의 경솔함이, 자신이 동의하여, 마을에 죽음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 이후로 잘생긴 죽음의 사자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데려갔다.(Thomas:28)

위의 4개의 신화는 인간의 죽음의 기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중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예문1]은 현재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 걸쳐

살고 있는 아칸족 신화이고, [예문2]는 나이지리아 남부의 이보족, [예문3]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역의 신화, [예문4]는 코트디부아르의 신화이다.

이렇듯 서로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신화들이지만 이러한 지역과 민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다. 먼저 모든 죽음의 기원 신화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원래 처음에는 신과 마찬가지로 불멸의 존재였다는 것이다. 원래는 신으로부터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멸의 존재였던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죽음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관점이다. [예문1]과 [예문2]는 모두 신이 인간의 고통이나 슬픔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의로 죽음을 보내주거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유형의 신화는 죽음의 기원 신화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좀 더 세분하자면 [유형1]의 경우 죽음은 긍정적인 가치이고, 신은 인간을 위한 호의로써 죽음을 제공하는 반면, [유형2]의 이야기는 죽음은 부정적인 가치이고 신은 인간에게 죽음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중간 전달자의 실수로 신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구조이다. 이 [예문2]의 이야기는 중간 전달자만 바뀐 형태로 아프리카 전역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기원 신화이다. [예문2]의 이보족 신화에서는 메시지 전달자가 개였지만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 지역의 부라족의 전설에서는 도마뱀,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의 코사족 신화에서는 카멜레온이 등장한다. 이 이야기들은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신이 선의로 인간들에게 죽음을 극복할 방법을 전해주려 했지만 메신저의 실수로 인간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라족과 이보족 그리고 코사족의 신화는 가장 먼 거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동물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예문3]과 같이 신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선택의 신화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현생에서의 삶의 쾌락을 위한 선택을 하지만, 이러한 지혜의 결핍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징벌이 따르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은 삶에 대한 애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는 이야기에서는 죽음이 인간 조건의 충만함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예문1]과 [예문2]의 유형처럼 ‘신이 죽음을 선물’하거나 메신저의 잘못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인간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신의 결정이나 메신저의 실수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의 철저하게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유형에서는 신이나 전달자는 단순한 매개적 존재일 뿐이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집행자가 된다. 이제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 된다.

이는 우리 인간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격성의 변화의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실제 현실에서 영생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던 사고’의 차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필멸이라는 것을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불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문4]와 같이 죽음이 인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유형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양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유형이지만 죽음과 현생에서의 가치관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독특한 아프리카적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예문4]의 여주인공은 분명히 자신의 무분별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지만, 정작 이 신화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유혹자, 즉 죽음의 사자의

아름다운 눈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는 점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예문4]의 여주인공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택했고, 자신의 본성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이는 인간은 이성으로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적 욕망과 감성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중적 신화는 사후적 합리화일 뿐이다. 근본적인 전제는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이다.

위의 신화들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신은 징벌적 존재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인간을 지켜보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초월적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위의 4개의 예문에 등장하는 신들은 모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간 매개자나 인간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은 대부분 그 민족이나 지역, 마을의 수호신들이다. 신들의 다름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자신이 지켜주는 인간들에 대한 의견 차이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신들은 절대적인 일방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포스러운 신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친근한 신들이고 심지어는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신의 개념은 범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즉 아프리카인들에게 신이란 전지전능하고 인간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기는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A living world emerges as a creation of a living God that creates something not previously actual from a living material or stuff that constitutes its nature in a living universe in which this being looms large as the maximal exemplar of the vitality of the eternal mood,

or the pre-existing stuff. This being is the entity called God. It is powerful but not omnipotent, knowledgeable but not omniscient, endowed with personality and benevolent but unable to eliminate evil in his created world by divine fiat.

살아있는 세상은 살아있는 물질이나 물건으로부터 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신의 창조물로 나타난다. 이 물질이나 물건은 살아있는 우주에서 그 세상의 본질을 구성하며, 살아있는 우주 안에서 이 존재는 영원한 분위기나 미리 존재하던 것들의 활력을 최대한의 규모로 흐릿하게 보여 준다. 이 존재가 신이라고 불리는 실체이다. 그것은 강력하지만 전능하지는 않고, 지식이 있지만 전지하지는 않으며, 개성과 자비를 부여 받았지만, 자신이 창조된 세상에서 신성한 명령으로 악을 제거할 수는 없다.(Ada Agada:303)

이러한 친숙한 신의 개념은 자연히 아프리카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연결된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신들과의 만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죽음은 인간에게 호의적인 신들과의 만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태도는 서구의 세계관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프리카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현세에 자유롭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If one dies a good death, then death is not a harm. For the loss of life in the physical world only liberates the individual from the limits of body function and allows the individual to influence both the physical world and the spiritual world as a disembodied spirit or ancestor.

누군가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세계에서 생명의 상실은 단지 개인을 신체 기능의 한계

에서 해방시키고, 개인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나 조상으로서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Aribiah:315)

이렇듯 아프리카인들에게 죽음은 현세라는 단계에서 내세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에게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다. 신화 속에 나오는 죽음의 세계 또는 유령의 나라는 단지 ‘머칠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멀리 떨어진 나라일 뿐이고, 주인공들은 두 세계의 경계를 넘나든다.(홍명희 2016:102~1060 이것은 죽음의 세계가 삶의 세계의 연장이라는 아프리카인의 상상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Ainsi, dans l’imaginaire africain, vie et mort participent d’un même tissu dont on se refuse à démêler les fils. Les mythes ont montré que c’est l’exigence de la vie même (nourriture, sexualité, connaissance…) qui introduit la mort. L’essentiel est la Vie qui renvoie au collectif, au perpétuel, au continu, à l’ordre.

따라서 아프리카인의 상상계 속에서는 삶과 죽음이 같은 직물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실을 풀고 싶어하지 않는다. 신화는 삶 자체의 요구(음식, 성, 지식…)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삶이며, 이는 집단적이고, 영속적이며, 지속적이고, 질서를 의미한다.(Thomas:80)

결국 아프리카인들에게 죽음은 삶을 유지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죽는다는 행위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건너가는 여정이자 통과 의례로 생각되는 상태의 변화일 뿐이다. 즉, 아프리카인들에게 죽음은 삶의 순환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의 집단적 상상력은 죽음을 상실의 슬픔으로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영혼은 죽음으로써 육체에서 분리되지만, 영원 속 어딘가에 불변하면서 무한히 갱신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죽

으면 육체는 썩지만, 대지로 돌아가면서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더 나아가 죽은 자는 유익한 기능을 부여받은 조상신이 되어 존경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철학은 단절에 대한 거부라 볼 수 있다. 첫째는 삶과 죽음으로 인한 삶과의 단절의 거부이며, 이는 삶 속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은 개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지만 결과적으로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본질적인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 Ⅲ. 가족의 수호신으로서의 조상신

흔히 민간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아프리카의 종교관에서는, 대부분의 민간 종교가 가족의 죽음을 또 다른 조상신의 탄생으로 본다. 이 조상신들은 굳이 신들의 위계를 따지자면 절대신의 하위에 위치한 하급신들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후손인 인간들과 가깝게 위치하는 친근한 신들이자 절대신들과의 매개자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Apart from God, many systems of thought in Africa locate ancestors on the first level, not because the ancestors are equal to God but because they are intermediaries whose work is highly valued. Ancestors are the closest links that the person has with the spiritual world. The place of ancestors in the person's life reflects the belief that the dead person does not wholly disappear. As such, they have profound influence on the individual's daily life.

신과 별개로, 아프리카의 많은 사상 체계는 조상을 첫 번째 수준에 두는데, 이는 조상이 신과 동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조상은 사람이 영적인 세계와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연결 고리이다.(...) 개인의 삶에서 조상의 위치는 죽은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렇듯 조상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Lonzoou:203)

그러므로 죽음은 가족의 상실이라는 슬픔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수호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과거 아프리카인들에게 장례식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슬퍼하는 침통한 행사가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관념이 현생에서의 삶의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죽은 자, 적어도 선한 죽은 자는 지혜의 저장소이자 모델이며, 지혜의 완성이라는 최상의 평가로 설정되며 신성의 완벽함으로 상징된다. 구체적으로 조상신들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이며, 같은 반열의 조상신들과 집단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후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꿈이나 토렘이 되는 동물의 모습 등의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후손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치는 숭배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살아있는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점술이나 엑소시즘을 행할 때 그들을 소환하고, 제사나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간청을 한다. 이러한 공생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조상의 권위와 힘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청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조상신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근본적인 규범으로 작용한다. 우선 조상신은 인간과 신 또는 영적 세계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진다. 조상신들은 살아있는 가족과 더 높은 영적 존재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가족이 신의 축복을 받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조상신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보호자로 간주된다. 그들은 살아있는 후손을

재난이나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지켜주는 존재들이다. 또한 조상신은 지혜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중요한 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후손들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흔히 꿈이나 의식을 통해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지혜를 전달한다고 여겨진다.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신은 그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적 규범을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들의 존재는 후손에게 조상의 가르침과 규범을 따르도록 독려하여 공동체의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의와 의식을 통하여 조상신을 기리는 행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물론 아프리카인들의 죽음의 세계관에 있어서 모든 죽음이 다 긍정적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후에 조상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만하고 의미있는 삶을 산 ‘좋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고, ‘나쁜 죽음’을 맞은 사람은 죽은 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유평이나 원혼이 된다.

In West Africa, indeed, living a full and meaningful life is a condition for becoming an ancestor. This is probably not universally the case in Africa, but in the view of some peoples, such as the Akan of Ghana, a person whose life is cut short by an accident or an ‘unclean’ disease or any other untoward circumstance does not gain immediate access to the country of the dead; he becomes a neighborhood ghost, an occasional source of frightening apparitions, until he can come back to be born again to try to work out a complete life.

실제로 서아프리카에서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보편적인 예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나의 아칸족과 같은 일부 민족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고나 ‘불결한’ 질병 또는 기타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단명한 사람은 죽은 자의 나라에 즉시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이웃의 유령이 되고, 가끔은 다시 태어나 완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돌아올 때까지 무서운 환영의 원천이 된다.(Aribiah:314)

나쁜 죽음의 대표적인 예는 일찍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공동체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풍성한 삶을 사는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할 수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나쁜 죽음은 자살이다. 자살은 삶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다. 자살 행위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관통하는 공동체와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자살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살한 개인을 공동체의 집단 매장지에서 멀리 묻는 것이다. 이것은 자살한 개인이 나쁜 방식으로 공동체에서 스스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시이다. 자살자는 죽은 후에도 조상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Aribiah:314-315) 이러한 이유로 지역과 관습에 따라서는 때때로 나쁘게 죽은 자를 훼손하여 그들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좋은 죽음을 돋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한국의 조상신 개념과 유사한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죽으면 자손들의 신이 된다는 관념적 정의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생활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가장 구체적인 예로 아프리카인들의 토템(Totem) 개념을 들 수 있다. 특별한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구성원들을 수호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일반적인 토템의 개념과 달리 아프리카인들의 토템 개념은 더욱 광범위하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토템들 중의 하나는 조상의 토템이다. 많은 아프리카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의 기준은 조상의 토템을 수여받는 것이다. 성년의 나이가 되어 조상의 토템을 받아 문신이나 상징물로 몸에 지니게 될 때 비로서 진정한 성인으로써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즉 아프리카인들은 죽어서 신이 되어 가족이나 구성원들을 지켜주고 토템을 통해 항상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023년에 발표된 아프리카처리즘 애니메이션 <키자지 모토:불의 세대>의 에피소드 중의 하나인 <First totem problem>은 이러한 조상신의 개념과 토렘을 통하여 조상들과 연결된다는 아프리카인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sup>

#### IV. 나가는 말

죽음의 기원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아프리카인들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관념과 생활 양식은 결국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려는 그들의 세계관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 세계에서 가장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세계관을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관대한 태도는 그들의 우주관과도 관련이 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우주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 영원 자체이고,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은 끝없이 반복된다. 죽음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항상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Ainsi, l'eschatologie négro-africaine semble exclure l'extinction de l'univers. Ou bien le monde se reconduit indéfiniment en se renouvelant, ou bien l'apocalypse implique nécessairement une renaissance. Dans les deux cas, vie et mort s'équilibrent sans faille et, à la limite, rien

---

1) <Kizazi Moto: Generation Fire>는 남아프리카의 Triggerfish가 제작한 아프리카처리즘 애니메이션 시리즈이다. 2023년 7월 5일 Disney+ 에서 방영되었다.

<First totem problem>

성년식을 할 나이가 된 음니키는 가족과 함께 토렘 수여장으로 가는 데 알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영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조상신들인 웨웨와 미미는 서로 음니키에게 자신의 토렘을 주어야 한다고 다투고, 한바탕 소란 끝에 토렘이 조상과 자신을 연결해 주는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된 음니키는 두 조상신의 토렘을 모두 받아 성인이 된다.

n'est plus utile que la mort puisqu'elle rend possible une vie neuve.

따라서 흑-아프리카의 종말론은 우주의 소멸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은 무한히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아니면 종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삶을 내포한다. 두 경우 모두 삶과 죽음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죽음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Thomas:21)

현실에서의 아프리카인은 높은 영아 사망률과 대규모의 학살 등 죽음의 일상 속에서 살아왔으며, 일상에서의 죽음은 무자비하게 존재해 왔다. 죽음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그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 노래, 이야기, 속담에서 죽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의 상상계는 상상력의 차원에서 현실의 잔혹함을 거부하고 상징을 매개로 상황을 역전시킨다. 즉, 죽음은 더 이상 삶의 돌이킬 수 없는 끝이 아니라 삶의 특정한 순간, 재생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삶이 기반인 아프리카인들에게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 역시 일종의 죽음, 즉 사회적 죽음으로 여겨진다. 어떠한 이유든 자신의 행위로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더 이상 집단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조상과의 만남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사후세계에의 합류가 영원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 된다.

사실, 죽음의 기원에 대한 신화들은 죽음의 기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보다는 인간의 강박관념과 열망,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암시해 준다. 이 신화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요구이고, 그 다음으로 죽음의 불가피성이 부각된다. 누군가가 언젠가 죽는다면, 그것은 그가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알고자 노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그래서 그는 원래부터 불멸이 존재했다고 환상을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음은 삶과 공존하는 보편적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의 기원 신화는 처음부터 '우리는 왜 죽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신화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아프리카인들에게 보편적인 이 죽음의 기원 신화들은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또 다른 열망의 표현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기국 외 공역(2017),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 - 남부 아프리카 편』, 다사랑.
- 홍명희 역(2016), 『나이지리아 남부 민담들』, 다사랑.
- 홍명희 외 공역(2016),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서부아프리카편』, 다사랑.
- 홍명희 역(2017),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중부아프리카편』, 다사랑.
- Ada, Agada(2023), “Rethinking the concept of God and the problem of evil from the perspective of African thought”, *Religious Studies* 59, 294-310.
- Aribiah, David Attoe(2023), “Death and meaning(lessness): re-examining the African view”, *Religious Studies* 59, 311-325.
- Bassong, Mbog(2013), *La Religion Africaine: De la cosmologie quantique à la symbolique de Dieu*, Kiyikaat.
- Freerks, Vanessa Anne-Cecile(2024), “African and Western Conceptions of Death and Dying: The Role of Ancestors, the Enduring Past and the Meaning of Life”, *Philosophia* 52, 1483-1505.
- Iniesta, Ferràn(2015), *Histoire de la pensée africaine*, L'Harmattan.
- Lévi-Strauss, Claude(1958), *Anthropologie structurale*, Paris, Plon.
- Lonzozou, Kpanake(2018), “Cultural concepts of the person and mental health in Africa”, *Transcultural Psychiatry* Vol. 55, 198-218.
- M. Ller, F. Max(2011), *Essais Sur La Mythologie Comparée, Les Traditions Et Les Coutumes*, Nabu Press.
- Thomas, Louis-Vincent(1982), *La Mort Africaine*, Payot, Paris.
- Triggerfish(2023), “Kizazi Moto: Generation Fire”, OTT Disney+
- Zahan, Dominique(1980), *Religion, spiritualité et pensée africaines*, Payot, Paris.

❖ ABSTRACT

## African concept of death and ancestral spirits through myth

HONG, Myung-Hee  
Kyung Hee University

Death is the most painful and fearful concept regardless of culture or era. However, Africans hav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 cultures regarding death. Although Africans also have a fear of death, they share relatively positive ideas compared to other cultures. These positive perceptions are deeply rooted in everyday life. Traditionally, for Africans, the death of an individual is not the end of a life engraved in linear time, but rather a point in the systematic, circular, and repetitive flow of time, being merely an event that occurs in the cycle of life. In traditional Africa, the world of the living and the world of the dead coexist. In the African worldview, the dead are not simply symbolic beings, but actually exist. African myths can be the easiest and only way to understand Africans' imagination of death.

Reasons for death that appear in origin myth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is the view that death is a gift from God to humans. God sends death with good intentions or tells us how to avoid death so that we can avoid suffering or sorrow. However, due to the mistake of the intermediary, God's will is distorted and transmitted. Thus, humans cannot avoid death. The second type is the view that God gives humans a choice, but death cannot be avoided due to humans' wrong choice. God or the intermediary is merely an intermediary. The

responsibility for death falls on humans. The third type is the view that it appears due to human desire. This shows that humans are not beings who live only with reason, but rather beings who live their lives influenced by personal desires and emotions. For Africans, God is not an absolute being who is omnipotent and completely controls human life, but rather a being who surpasses humans with certain limitations. This familiar concept of God is connected to Africans' attitude toward death. For Africans, death is not the end of life, but rather a meeting with gods who protect them. Africans see the death of a family member as the birth of another ancestral god. These ancestral gods have a greater influence on everyday life than absolute gods. Not all the dead will become ancestral spirits. Only those who have lived a full and meaningful life with a 'good death' can become ancestral spirits.

Keywords: African mythology, death, African gods, ancestral spirits

■ 논문투고일 : 2025. 05. 10

■ 심사완료일 : 2025. 05. 31

■ 게재확정일 : 2025. 06. 09

